

프롤로그: 시공을 넘나드는 만남

때는 2025년, 지구촌 곳곳에서 에너지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화석연료 고갈, 기후변화, 치솟는 전기요금. 인류는 전혀 없는 에너지 딜레마 앞에 서 있다.

그런데 만약, 정말 만약에 말이다.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 수 있다면, 에너지를 둘러싼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느 고요한 저녁, 한 평범한 찻집에 두 명의 손님이 나타났다.

한 명은 19세기 영국에서 온 나이 든 신사였다. 비글호를 타고 세계를 돌며 생명의 진화를 발견한 찰스 다윈. 그의 눈에는 여전히 호기심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또 한 명은 2500년 전 인도에서 온 수행자였다.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싯다르타, 곧 부처님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자비와 지혜가 서려 있었다.

두 사람 사이 테이블 위에는 작은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 작은 불꽃이 바로 오늘 밤 이들이 나눌 대화의 주제였다.

에너지.

다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참 오묘한 일이군요. 시공을 넘어 이렇게 만나다니. 하지만 우연이 아닐 겁니다. 우리 둘 다 '변화'에 대해 깊이 사유했던 사람이니까요."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생명의 변화를, 저는 마음의 변화를 관찰했지요. 그런데 지금 인류가 직면한 문제는 우리 둘의 관점이 모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촛불이 잠깐 흔들렸다. 마치 이들의 대화에 귀 기울이는 듯했다.

"에너지 말입니까?" 다윈이 물었다. "흥미롭군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모든 생명체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경쟁하고,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습니다. 인간 문명도 마찬가지지요. 불의 발견부터 증기 기관, 전기, 원자력까지. 우리는 계속 발전해왔습니다."

부처님은 차분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다윈 선생님, 당신의 관찰은 정확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것을 봅니다. 에너지를 향한 끝없는 갈망, 그 뒤에 숨어있는 고통을 말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대화는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깊어졌다.

한 사람은 생존과 적응의 논리로, 다른 한 사람은 상호의존과 조화의 지혜로 에너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현재 인류가 직면한 에너지 문제의 새로운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도 에너지다. 진짜 나를 사랑하면 진짜 에너지를 아끼고 사랑하라.

이 책은 그 하룻밤의 대화를 담은 기록이다.